

미국 스미스대 간화선 특강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 무엇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

2012년 11월 5일 미국 동부의 스미스대학 종교학과는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을 초청 '한국 간화선 수행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니엘슨 도서관 매리 메이플 홀에서 열린 특강에는 메사추세츠주 스미스대, 햄프셔대, 애크스턴대, 마운트 홀요크대 등의 교수 및 학생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통역은 햄프셔대학 교수인 헤민 스님이 맡았다.  
정리=김홍근 박사(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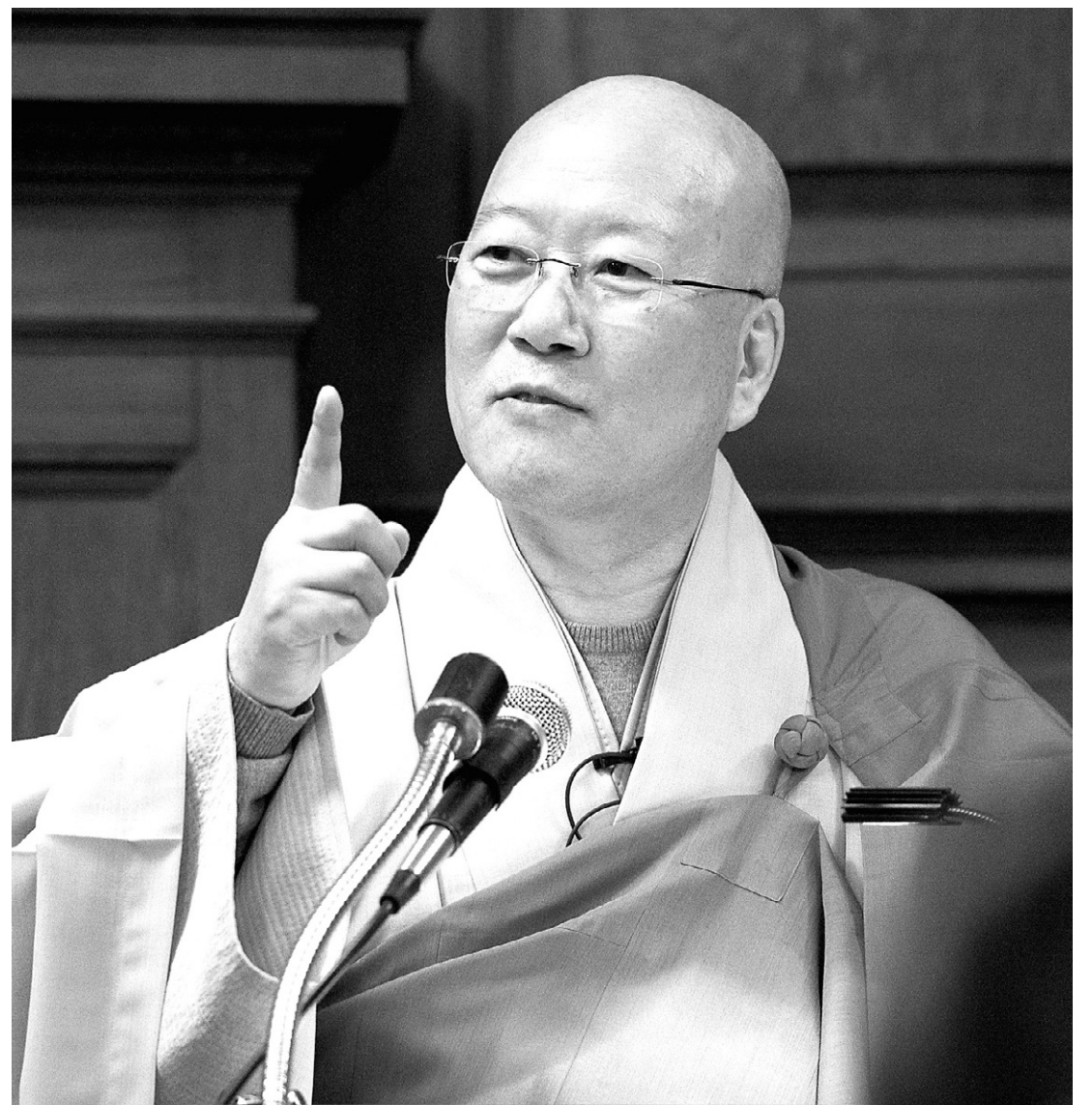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실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요체인 선(禪)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이고 지식적 차원의 이론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지혜를 눈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무언하고도 여러 석음을 벗어나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발전한 사회모습에서 보듯이 엄청난 질적, 양적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그것은 무지를 넘어 무지의지(無知之知)를 눈뜰 결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시작도 끝도 없었던, 시작과 끝이 동시에 모습 없는 모습에서 비롯된 물질적 장벽과 정신적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수행법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500년이 흘러 간화선이라는 수행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그 수행법을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선보이는 인연을 가져보겠습니다. 물질적인 벽은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허물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인들은 대개 정신적인 벽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정신적인 벽을 맞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벽을 느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허물 수 있는지는 더 더욱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실례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물건을 무엇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눈이 본대거나 마음이 본다고 대답하겠지요. 상식이나 지식으로 말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능이 있어서 볼 줄 알게 된 것

입니다. 마음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괴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먼저 뒤 뒤에야 사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눈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거울에 비친 눈을 보고 '저것이 눈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상황 밖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통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을 찾아서 전해주시는 선지식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화선 수행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손가락을 한 번 뻗어 보십시오. 무엇이 나오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나오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마음은 왜 아니냐?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란 말은 이 일단의 일을 깨달은 이가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집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배워서 답이라고 해봐야 자기 안의 번뇌 망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알음알이로 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한다고 가르치지만, 불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불법은 불안과 법안을 말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를 가르치지만, 불법은 무자비합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요구합니다. 또 내가 죽어 송장이 되면, 손가락이나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나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 하여금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인연이 있는 분야라면, 이쯤에서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눈앞을 가로막는 정신적인 벽을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나오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만 찾으십시오. 문제 따라 답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뭘까 석연치 않은 기운이 마음속에 걸려라 됩니다. 뭘까 갑갑한 기운이 가슴에 자리 잡아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기운이 왜 생겼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알고 싶은 궁궁증이 그런 기운을 만들어 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다가 물이 안 나타나면, 목만 더 마르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려고 하는 마음 일어나면  
의심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답답한 기운에 집중하며 정진  
강하게 밀어부쳐야 화두 열려

갑갑하니 알려고 해야 하고, 알려고 하지만 알아지지 않으니 답을 찾아 계속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의심만은 결코 놓치지 말라는 점입니다. 그 답답한 기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답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햇빛을 볼록렌즈에 맞추어 불을 얻는 것처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인연이 있으면 바로 갑갑한 기운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답만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되풀이해서 외우지 마십시오. 문제는 한 번 듣고 느끼면 됩니다. 오로지 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됐습니까?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닌, 뭘까 아련한데 갑갑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공부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집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집중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집중은 어느 한 곳에 몰두하는 것을



수불 스님은 ... 1975년 범어사에서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7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부터 10여 년 간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1989년 부산에 안국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이며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이다.

말하지만, 간화선 수행에서의 집중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연되어진 무라과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에 스스로 사무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뱃사공이 여울물을 만나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멀어집니다. 그냥 밀려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때의 집중력이란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

서는 알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리못지를 두드려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매우 세게 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화두가 걸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길을 가본 사람의 길안내를 받아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수행하기도 힘들지만, 선지식 만나기는 더 힘든 법입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2012년 11월 5일 미국 동부 스미스대에서 '한국 간화선 수행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통역은 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이 맡았다. UCLA에서도 같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질문**

수불스님이 지도하는 간화선 수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단계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고 바로 의정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는 한 번 듣고 알아들었으니, 다만 찾도록 지도합니다. 간화선은 처음부터 대중들을 위한 지름길 수행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질과학문명이 발전한 것만큼 이제는 정신문명의 수행법도 발전해서 누구나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통 간화선법은 이 바쁜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황구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눈뜨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선과 선은 다릅니다. '참'이 떨어지거나 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은 신비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공개된 비밀입니다. 진리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비밀 없이 자유자재로 인연을 살펴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에 가깝습니다. 선은 종교마저도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넘어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인연으로 여러분이 간화선 수행으로 대자대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받침 P.C컵 밑받침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약쑥양초      한동밑받침양초

① 약쑥초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③ 약쑥초 돈타래	④ 약쑥초 2호	⑤ 약쑥초 3호	⑥ 약쑥초 4호	⑦ 약쑥초 5호	⑧ 약쑥초 6호	⑨ 약쑥초 7호	⑩ 약쑥초 8호	⑪ 약쑥초 9호	⑫ 약쑥초 10호	⑬ 약쑥초 11호	⑭ 약쑥초 12호	⑮ 약쑥초 13호	⑯ 약쑥초 14호	⑰ 약쑥초 15호
① 밑받침 90cm	② 밑받침 연봉 원기둥	③ 밑받침 돈타래	④ 밑받침 2호	⑤ 밑받침 3호	⑥ 밑받침 4호	⑦ 밑받침 5호	⑧ 밑받침 6호	⑨ 밑받침 7호	⑩ 밑받침 8호	⑪ 밑받침 9호	⑫ 밑받침 10호	⑬ 밑받침 11호	⑭ 밑받침 12호	⑮ 밑받침 13호	⑯ 밑받침 14호	⑰ 밑받침 15호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받침으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받침은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 1등 연꽃밑받침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인동      인동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흰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정리 35-16